

# 평화의 염원 담아 화합을 노래하다

## 남북정상회담 빛낸 문화예술

평화의 집 1층 로비

민정기 화백 청록빛 '북한산'

회담장 신장식 화백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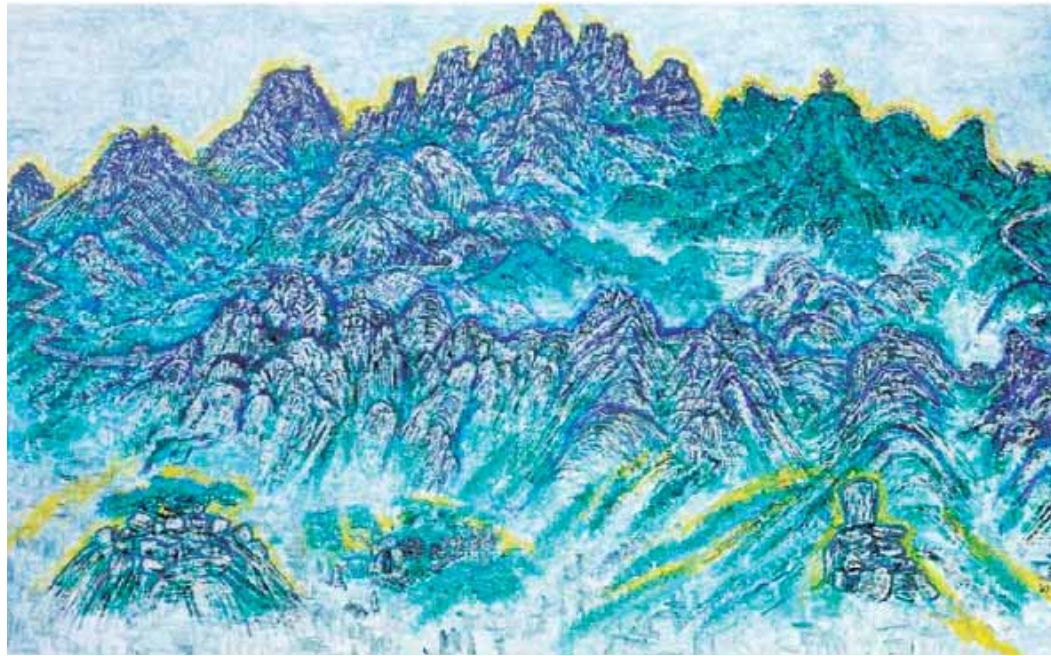
복도엔 이이남 작품 내걸려

만찬장 오연준군 노래

리설주·김여정도 따라 불러

영상쇼 '하나의 봄' 이끈

음악감독 정재일도 화제



민정기 작 '북한산'



정재일

오연준

“이 작품은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인데 사맛디의 ‘ㅁ’은 문재인인의 ‘ㅁ’, 팽가노니의 ‘ㄱ’은 김 위원장의 ‘ㄱ’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세부에게까지 마음을 썼습니다.”(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 새 역사를 쓰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풍성한 뒷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회담장 곳곳에 걸린 미술작품을 비롯해 만찬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이야기들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다양한 의미 담은 미술 작품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평화의 집 곳곳에 다양한 미술품을 걸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미술품을 선정했다”며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와 정성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기념 사진을 찍은 평화의 집 1층 로비에는 민정기 작가의 2007년 작 ‘북한산’이 내걸렸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서울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서울에 있는 산이지만 이름은 ‘북한산’이라는 점도 고려해 선정된 작품이다. 이 그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것은 어떤 기쁨으로 그린 것인가”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쁨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민중미술 1세대로 불리는 민 작가의 작품은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이남 작 '평화의길목'

2층 회담장에 걸린 신장식 화백의 작품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또 3층 연회장에는 신대수 작가의 ‘두무진에서 장산곶’이 걸렸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안가를 묘사한 회화 작품으로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다.

회제가 된 접견실 내 병풍은 세종대왕기념관이 소장한 ‘여초 김응현의 훈민정음’을 사진작가 김종만이 재해석한 작품 ‘천년의 동행, 그 시작’이다. 김 작가는 두 정상의 성인 ‘ㅁ’과 ‘ㄱ’을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강조해 두 정상이 서로 통하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았다.

광주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 두 점은 연회장 밖 복도에 걸렸다. 이번 회담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평화의 길목’은 경제 전선의 ‘금강대산’과 ‘단발령 땅길’을 소재로 한 디지털 8폭 병풍 형식으로, 8개 모니터 영상이 서로 연결돼 하

나의 큰 그림을 이룬다. 서로 닿을 수 없는 산과 산을 현대적인 이미지 언어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산 위에 남북의 상징적인 건물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남북이 하나임을 의미한다.

평창올림픽 때도 소개됐던 ‘고전화화 해피니스’는 함께 달을 읊기는 모습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심사정의 ‘소리고사도’ 등 8개 고전화화 작품을 차용한 작품으로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을 읊기는 모습을 통해, 남북 분단의 역사를 회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두운 깊은 밤의 역사에서 빛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감동적인 음악 공연  
이날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른 ‘제주 소년’ 오연준군은 연일 포털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됐다.

오군은 김광석 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을 함께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 등이 함께 따라부르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오군은 지난 2016년 방송된 Mnet ‘위키드’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가 당시 부른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바람의 빛깔’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2018 평창장애인올림픽’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렀다.

만찬이 끝난 후 진행된 영상쇼 ‘하나의 봄’을 이끈 작곡가 겸 음악감독 정재일도 화제였다. 그는 ‘아리랑’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을 기반으로 음악을 구성했고 피아노 연주도 직접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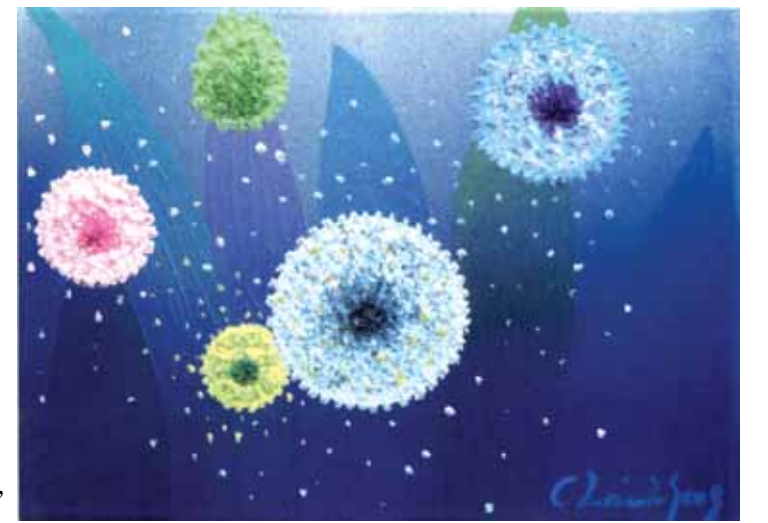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저녁 만찬 무대에도 섰던 그는 1999년 가수 이적, 정영영 등과 그룹 깡스 멤버로 정식 데뷔한 그는 퓨전국악 밴드 푸리 멤버로 활동했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음악감독으로도 참여했다. 대중들에게는 가수 박효신의 음악적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다. 박효신의 대표작 ‘야생화’가 그의 작품이며 최근 발표된 8집앨범에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파꽃, 그리고 트리플 환타지’...최향 개인전

5월 2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파꽃-그리고 트리플환타지’

최향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는 ‘파꽃’이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파꽃은 촉촉히 물감을 발라 입체감을 준 게 특징이다. 최 작가가 이번에는 ‘변신’을 시도했다. 기존의 파꽃 연작과 함께 20년만에 다시 추상작품을 선보이며 또 다른 출발을 기약한다.

최향 작가 개인전이 오는 5월2일까지 광주예술의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파꽃...그리고 트리플 환타지’. 최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파꽃 연작과 함께 기존 스타일에 변형을 가미한 파꽃 연작,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추상작품 등 세가지 스타일(트리플)의 전시작으로 관람객들을 만나는 중이다.

올해 신작은 기존의 파꽃 연작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 작가는 ‘파꽃’은 영원한 화제(話題)로 삼되, 젊은 시절 몰두했던 추상작업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작업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봤다고 말했다. 두가지 작업을 병행하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고, 그게 바로 자신이 지향해야 할 작업 방향일 거라는 설명이다.

추상작품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게 눈에 띈다. 모래와 가느다란 철사를 자유롭게 부착한 후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캔버스 위에 골판지를 찢어 붙여 독특한 조형미를 부여하며 입체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화면을 장식하는 다양한 색깔과 은빛을 활용한 환상적인 분위기, 그라디이션 효과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그밖에 색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기존 스타일의 파꽃 작업 역시 배경 화면과 개별 꽃들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편안함을 준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 작가는 지금까지 서울, 광주, 독일 베를린, 일본, 파리 등에서 29회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32-7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이상호 개인전

### ‘연필로 그린 부처님’

5월 2일~31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종생을 교화시키는 '녹원전법상' (鹿苑轉法相).

민중미술작가인 이상호의 두 번째 개인전 ‘연필로 그린 부처님’전이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인 ‘팔상도’를 선보인다. 팔상도(八相圖)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모태에 입태되는 상인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모태에서 출태하는 탄생을 뜻하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등을 통해 석가의 삶과 깨달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작가는 조선시대 ‘월인석보’ 목판본으로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팔상도(八相圖)를 4B연필로 종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묘사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세밀함을 넘어 생동감이 넘치

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종교를 넘어 부처의 일대기를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작가의 작업특징은 고려불화를 차용한 게 특징이다. 1992년 ‘고려불화전’은 작가에게 불화형식을 작품에 차용하는 계기가 됐으며 작가는 ‘지옥도’, ‘아이들을 안은 관세음보살’ 등을 통해 박해받고 소외되는 민중들의 삶을 평화의 하단에 생명강 넘치는 묘선으로 형상화했다.

한편 이 작가는 1987년 공동제작한 갈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새날이여’가 미술작품으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구속돼기도 했다. 문의 010-6502-55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제 63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2018. 4.19 목 - 5.29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8. 5.14(월) - 5.16(수)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9일(목)-5월 29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8년 4월 16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대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예정)

개인: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창사66주년